

경기공유학교 기반 경제금융 교육 협력 체계 구축

KB금융공익재단 전문 인력·교육자원 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남부청사에서 KB금융공익재단과 경기공유학교 기반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와 지역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공익재단의 교육 콘텐츠와 전문 인력 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체험 중심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경제·금융 문해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공유학교 경제금융 프로그램 공동 운영 ▲KB금융공익재단 교육자원과 시설 활용 ▲청소년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 역량 교육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스타 경제교실',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KB드림커넥트' 등의 대표 협력 프로그램은 금융권 전문 강사가 참여해 체험 수업과 금융권 진로 탐색 콘텐츠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경제 이해와 진로 설계 역량을 동시에 지원한다.

아울러 학습 소외 및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함께하는 경기공유학교 교육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가능성이 미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안양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

안양시(시장 최태호)는 2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3층 상강실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통합지원'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요양·복지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1명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촉식 위촉식과 함께 2026년 통합지원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안양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안양형 통합돌봄'을 실현 단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기존의 분절적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으로 안양형 통합돌봄의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 음식 맛본다



지난 2월 11일 수원시청 구내식당 점심 메뉴는 닭다리살볶음밥, 지파이(대만식 닭튀김), 새우담집, 오이탕탕이, 누가크래커였다. 수원시의 국제우호도시인 대만 가오슝시의 대표 음식들이었다.

수원시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의 특산물, 대표 음식으로 구내식당 메뉴를 구성하는 '도시를 맛보다'를 운영한다. 국외 자매우호도시를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국내 자매우호도시의 특산물을

구매해 상생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매우호도시협약 체결일에 맞춰 그 도시의 대표 음식을 메뉴로 선보인다. 가오슝시와는 2019년 2월 16일 협약을 체결했다.

호주 타운즈빌시(4월), 캄보디아 시엠립주(7월), 인도네시아 반둥시(8월), 중국 항저우시(10월), 중국 지난시(10월), 일본 아사히카와시(10월)의 대표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내 자매우호도시의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도 제공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과 자매우호도시에서 특산물을 구매해 식단을 구성한다.

포항시(3월), 제주시(4월), 논산시(5월), 봉화군(6월), 전주시(7월), 거제시(10월), 태안군(11월)의 특산물로 만든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정구 사송동 일원 375m 도로 개설 추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3번지~484-8번지 일원에 오는 2030년까지 375m 길이의 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사송동 일대 주민들의 안정적인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송1동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관한 고시' 절차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사송1동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공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결정된 도로는 총길이 375m에 폭

6~15m 규모다. 총 33필지(국·사유지 20필지, 사유지 13필지)가 도로로 편입돼 전체 도로 면적은 3065㎡다.

전체 도로 면적(3065㎡) 중에서 845㎡(27.5%)는 국유 재산인 수도용지다.

해당 수도용지가 포함된 구간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가 국유 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협조해 도로 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올 상반기 중에 도로 실시계획 인가와 도로공사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한다. 이후 토지 보상 절차를 마친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다. 도로 개설에 드는 총사업비는 38억6500만원(토지 매입비 28억원 포함)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 공사가 장기 간 소요되는 만큼, 답장이나 울타리가 설치돼 차량이나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는 토지부터 사들이 임시 도로나 보행길을 내는 방식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가수 박상민 등 5명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

경기도의 문화예술·복지·청소년·국제교류·생활체육 등 분야별 홍보 강화

경기도가 가수 박상민, 전 마라톤 선수 이봉주, 뮤지컬 연출가 박리디아, 아역배우 한지안, 방송인 도른 에블리를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도청 집무실에서 2026년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문화예술·복지·청소년·국제교류·생활체육 등 도정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출연, 도정 홍보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도 정책과 가치를 도민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이민사회국, 대화용기 사용, 골목시장 등을 살리기 위한 통큰세일, 경기도가 주관하는 영화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지사는 "경기도 홍보대사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하나는 경기도민이다. 홍보대사들이 광장히 많은 도

민을 대표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석으로 홍보대사들을 향해 경기도 전통시장 내 떡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중적 인지도를 동시에 갖춘 인물들이다.

박상민은 1993년 데뷔 이후 '해바라기', '떨어져 간 사람아', '무기여 잘 있거라'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아 온 가수로, 꾸준한 기부·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5명이 경기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됨에 따라 총 33팀이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민수 기자

경기관광공사, '국제 AI 영상 공모전' 성료 세계에 전파

국내외 1,680편 참여 속 98편 수상작 선정...AI 기반 관광 콘텐츠로 경기도 글로벌 홍보 강화

경기관광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경기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진행한 '경기관광 국제 AI 영상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디어로 경기도를 알리다(AI-deas to Promote Gyeonggi)'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약 5주간 진행됐다. 접수결과 국내외에서 총 1,680편(국내 1,216편, 해외 464편)의 작품이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기대 이상의 우수작들이 많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속에 전문가 심사, 온라인 대국민 투표 등을 거친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의상, 입선 등 총 98편의 최종 수상작을 지난 23일 선정, 발표하고 25일 오후에는 동수원CGV에서 수상작 상영과 함께 시상식을 진행했다.

영예의 대상은 경기도의 관광 자원을 과거와 현재의 만남으로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지나간 시간이 오늘 의 일상이 되는 곳, 경기도'가 차지하며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됐다.

각 분야별 최우수상에는 ▲국내 경기관광 분야에서 '서른 한 개 트랙, 경기도 플레이어리스트' ▲해외 경기관광 분야에서 '경기도, 처음이야? (First Time in Gyeonggi?)' ▲경기도 DMZ 분야에서 '경계없는 상상, 경기 DMZ에서 만나는 나만의 DMZ' ▲경기도 MICE 분야에서 '경기, 판을 바꾸다'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 팀 라이브나우 김민희 씨는 "AI라는 혁신적인 도구로 경기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이야기로 구성해보는 과정이 매우 즐겁고 의미 있었다"며, "제가 만든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경기도 방문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민수 기자

한국도자재단, 한국·대만·일본 3개국 '2027 아시아 도자 서클'

'아시아 도자 삼각주' 이후 20년 만에 재가동되는 동아시아 도자 협력 플랫폼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이 한국·대만·일본 3개국이 공동 추진하는 국제화회전 프로젝트 '2027 아시아 도자 서클(Asia Ceramic Circle 2027)'을 본격 추진한다.

전시는 ▲대만 잉거도자박물관(2027. 1. 15.-3. 21., 65일간) ▲한국 경기도자미술관(2027. 4. 9.-6. 13., 65일간) ▲일본 기후현현대예미술관(2027. 7. 2.-9. 5., 65일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 9월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과 신베이시립 잉거도자박물관, 기후현현대예미술관 간 체결한 3차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제 협력 사업이다. 전시 협약 체결 이후 전시 공간 검토와 주제 설정을 마치고 순회전 개최를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2027 아시아 도자 서클'은 2006-2007년 한국·대만·일본이 공동 추진한 국제 순회 프로젝트 '아시아 도자 삼각주(Asian Ceramic Delta)'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의



미가 깊다.

당시 프로젝트는 이전 세계도자센터(現 경기도자미술관)를 시작으로 대만 잉거도자박물관, 일본 기후현현대예미술관을 순회하며 3국 대표 작가들이 참여한 선구적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동아시아 현대 도자예술의 공존과 균형을 모색한 상징적 사례로 남아 있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순회전은 지난 20년간 변화한 사회·문화 환경을 반영해 동시대 시 각문화와 연결되는 새로운 도자 담론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아시아 도자 전문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학술·연구·레지던시로 확장되는 장기 교류 체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농가 115곳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026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농업 관련 단체장과 공무원,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 위원 14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대상 농가 115곳을 선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한 달간 올해 농업기술 시범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했다.

시 관계자는 "신기술을 보급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용인농업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전통시장에 관광·체험

더해 지역 상권에 활력

파주시가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과 체험 요소를 집목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6년 문산자유시장과 광탄경매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문산자유시장 디엠지(DMZ) 지역연계 관광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과 디엠지(DMZ)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문산자유시장에서 1만 5천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관광버스를 운영해 제3방굴, 도라전광대, 통일촌 등을 순회하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영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관광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광탄경매시장 육성사업은 경매라는 이색적인 방식을 활용한 체험형 전통시장 프로그램이다.

군포시, 해빙기 취약시설

41개소 안전점검 실시

군포시는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노후주택, 급경사지, 건축공사장 등 총 41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붕괴·전도·낙석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시는 D등급 노후주택을 포함한 주요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 조치하고, 긴급 보수 대상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해빙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취약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위험요인은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주변에서 불안한 시설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군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 농가 생산정보 전수조사

양평군은 농가 통합생산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정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로,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초정보와 생산시설 보유 현황, 농산물 생산 및 출하 현황, 가공·판매 소득 현황, 농사 소득 현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농가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는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며, 군은 조사된 정보를 취합해 각종 보조사업과 판로 지원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군은 통합생산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품목별 생산량 예측이나 수급 안정 관리, 재해 대응 체계 고도화, 농가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이 가능해져 농정 전반의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민수 기자